

17년 돌고 돌아...광주 도시철도 2호선 마침내 첫 삽

내일 광주시청서 기공식

41.843km 2조1761억 투입

2025년까지 1~3 단계별 개통

광주 도심 30분 생활권 시대

찬반 여론으로 갈려 17년간 제자리 걸음을 해왔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5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 추진된다.

2002년 기본계획 최종 승인 이후 재정 부담·경제성·건설방식 등을 둘러싸고 이어졌던 찬반 논쟁을 지난해 8월 '시민 공론화'를 통해 마침표를 찍고,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됐다.

〈관련기사 3면〉

광주 시내를 타원형으로 감싸고 운행할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끝나고 오는 2025년 개통하면, 광주는 시내 어느 곳이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30분이면 오갈 수 있는 교통환경이 구축된다.

3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5일 오후 3시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우천시 대회의실)에서 도시철도 2호선 기공식을 연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공무원, 지역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 시민 등 700

여명이 참석한다. 착공식은 도시철도 2호선 홍보영상 상영, 공식행사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다.

기공식 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41.84km의 타원형 코스로, 사업비는 2조 1761억원이다. 길다란 구간을 1~3단계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며,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계별로 완공할 때마다 개별 개통을 하는 만큼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분담 효과는 극대화하겠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현재 6개 공구로 나뉜 1단계 공사는 업체 선정이 완료됐으며, 이들 업체는 함께 공사를 진행할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자재 등 준비가 끝나는 대로 맡은 구간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르면 이달 중 1단계 구간 공사 업체 일부가 굴착작업을 시작으로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파악됐다.

박남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은 "향후 5년간 도심 곳곳에서 공사가 이어지게 돼 교통불편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도시철도 2호선이 2025년 개통하면 광주는 대중교통만으로 시내 곳곳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게 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목포 해상케이블카 7일부터 운행

총 운행거리 3.23km로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개통을 앞두고 3일 오전 시험운행하고 있다. 북항과 유달산, 고하도를 잇는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오는 6일 개통식을 시작으로 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전남, 국내외 문화·자본 끌어들이 플랫폼 역할해야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2040 미래 발전 전략 토론회'

광주·전남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리, 블루이코노미 등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연대, 소통하며 미래 사회의 중심가치를 창조하는 협력·혁신의 중심지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연구원은 3일 연구원 상생마루에서 '광주전남 2040 미래 발전 전략 토론회'를 열고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핵심으로 부상해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토론회는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개원 4주년, 건원 28주년을 기념해 광주

일보와 공동 주최·주관으로 기획됐다. 토론회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인연구위원을 비롯,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조발표에서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점을 내세우며 균형발전

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했다.

김재철 선인연구위원은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연대, 협력 등을 통한 생활 정책을 강화하면서 산·학·연·관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혁신적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지역 자산을 가꿔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내 국내외 지식·문화·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는 광주·전남의 차별화된 발전 전략과 상생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문 대통령,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9일께 임명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요청 시한은 오는 6일로 정해 국회에 나흘의 말미를 줬다. 〈관련기사 3·4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대상은 조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

용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6명이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의 경우 청문회는 열렸으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6일 자정까지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오는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후보자들의 임명 시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며 "(주말인) 7~8일이 될지, 업무개시일인 9일이 될지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청

와대 안팎에서는 주말을 거쳐 9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 내에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전망과 관련해 "청문회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물리적·형식적으로 가능하다 싶은데 그것은 여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추석 선물세트

AMORE PACIFIC CORPORATION



종합 1호 9,900원



종합 3호 16,900원



종합 4호 21,900원



프리미엄 2단 선물세트 1호 39,900원



프레시팝 베이직 선물세트 32,900원



종합 5호 25,900원



종합 6호 32,900원



종합 8호 40,900원



AP 아로마퍼퓸 세트 29,900원



AP 로즈에디션 세트 28,900원

기업고객님의 구매수량에 따라 권장 소비자가에서 최대 50%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100개 이상 대량 구매고객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달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